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2년 연속 증가세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희)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95.6%), 투자개발 사업은 전년(10.2억, 3.1%)보다 소폭 증가한 14.6억불(4.4%)을 기록하였다.

□ 2023년 수주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정상 외교가 활발하였던 중동지역 수주가 회복*된 것이 눈에 띈다.

* 2022년 대비 수주액 24.1억 증가하여, 지역별 수주 순위 상승(2022년 2위 → 2023년 1위)

-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8억불) 및 자푸라 가스플랜트(23.7억불) 등의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여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사우디아라비아 진출(1973~) 이래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 프로젝트(수주액 기준)

-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실적 집계(1965~) 이래 최초로 미국이 수주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 공종의 비중 확대(2022년 27.9% → 2023년 36.5%)로도 이어졌다.

* 미국 수주 : ('20) 2.9억불 → ('21) 9.4억불 → ('22) 34.6억불 → ('23) 99.8억불

- 그간 미국 등 선진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는데, 제조업체 공사 등을 통해 현지 노하우와 실적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선진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선진시장의 경우 기존사업 실적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한편, 인력 고용·하도급 등 사업 수행 관련 제도가 복잡하여 실적·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

- 한편, 1단계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가 투자(0.8억불)한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사업의 시공(5억불)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 PIS펀드(1.5조원 규모)는 우리기업 관련 투자사업 발굴 후, 순차적 투자 집행 중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 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 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면서,

- “해외건설 진흥은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금년에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주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년 수주 실적과 관련 상세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oci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신형 (044-201-3516)
		담당자	사무관	고명운 (044-201-3520)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책임자	과 장	우종하 (044-201-3526)
		담당자	사무관	남공부 (044-201-3527)
공동 배포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책임자	실장	이용광 (02-3406-1060)
		담당자	부장	김성진 (02-3406-1050)



참고1

'23년 해외건설 수주통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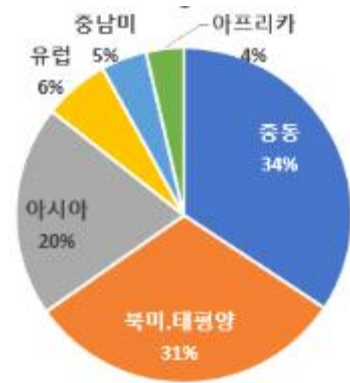
□ 연도별 수주현황(2015년 이후)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수주액(억불)	461.4	281.9	289.6	321.1	223.2	351.3	305.8	309.8	333.1
수주건수(건)	697	607	624	661	667	564	499	580	606

* '65~'23까지 누적 수주액은 총 15,901건, 9,638억불

□ 지역별 수주현황

구 분	2023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액 (억불)	비중 (%)	수주액 (억불)	비중 (%)	
중동	114.3	34.3	90.2	29.1	126.8
북미·태평양	103.1	31.0	45.4	14.6	227.3
아시아	67.9	20.4	122.1	39.4	55.6
유럽	21.0	6.3	34.1	11.0	61.7
중남미	14.7	4.4	6.0	2.0	242.6
아프리카	12.1	3.6	12.0	3.9	100.3
합계	333.1	100.0	309.8	100.0	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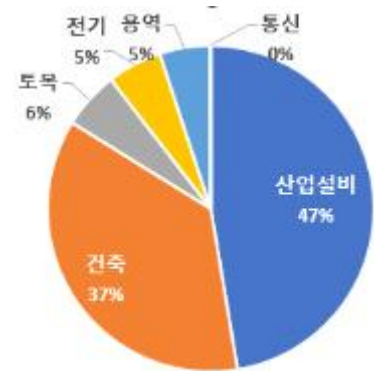


□ 국가별 수주현황(상위 5개국)

순위	국가명	2023		국가명	2022		국가명	2021	
		수주액 (억불)	비중 (%)		수주액 (억불)	비중 (%)		수주액 (억불)	비중 (%)
1	미국	99.8	30.0	인니	36.7	11.8	사우디	56.9	18.6
2	사우디	94.9	28.5	사우디	34.8	11.2	UAE	28.8	9.4
3	대만	15.1	4.5	미국	34.6	11.2	호주	24.1	7.9
4	카자흐	10.1	3.0	이집트	27.8	9.0	카타르	22.3	7.3
5	나이지리아	8.9	2.7	카타르	16.5	5.3	싱가포르	19.7	6.4

□ 공종별 수주현황

구 분	2023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액 (억불)	비중 (%)	수주액 (억불)	비중 (%)	
산업설비	157.8	47.4	131.0	42.3	120.5
건축	121.4	36.5	86.6	27.9	140.3
토목	19.0	5.7	58.5	18.9	32.4
전기	18.0	5.4	13.0	4.2	138.9
용역	16.7	5.0	19.7	6.4	84.5
통신	0.2	0.0	1.0	0.3	17.7
합계	333.1	100.0	309.8	100.0	107.5



참고2

PIS 1단계 펀드 개요 및 투자사례(미국 태양광)

□ PIS 1단계 펀드

- (목적) 단순도급에서 투자개발사업으로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 진출 활성화 지원
- (내용)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개발사업으로의 해외수주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펀드 조성
 - 정부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 매칭을 통해 하위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투자



□ [PIS펀드 투자사례] 미국 텍사스 Concho 태양광발전 사업

- PIS 펀드를 통해 80백만불 투자, 국내기업(SK에코플랜트)이 약 5억불 해외수주를 달성하여, PIS 펀드 투자 대비 6.2배 수주 성과

< 미국 텍사스 Concho 태양광발전 사업 개요 >

- 사업규모 : 350MW 규모 태양광발전
- 총사업비 : 약 5.1억불 (EPC 4.99억불, SK에코플랜트)
- 사업기간 : 36.5년 (건설1.5년, 운영 35년)
- 펀드투자 : 80백만불*

* PIS 모태펀드(25백만불)와 민간매칭(55백만불)을 통해 PIS 자펀드 80백만불 조성